▣ 그림 여행

마루 깎는 사람들
(Les Raboteurs de Parquet c. 1875)

귀스타브 카이유보트 (Gustave Caillebotte 1848 - 1894)
(캔버스에 유채 102 cm x 146.4 cm 파리 오르세 미술관)

2018년 영화 '콜레트(Colette)' 를 보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다. 아니, 알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프랑스 여성 작가 시도니-가브리엘 콜레트 (Sidonie-Gabrielle Colette)의 전기 영화였는데 영화 중 한 장면이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카이유보트의 '마루 깎는 사람들' 그림을 재현한 컷이었다. 콜레트가 시골에 집을 사서 수리하고 꾸미는 중에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세 명의 일꾼들이 웃통을 벗고 열심히 나무 마루를 깎는 장면이다. 구도에서 색채, 명암까지 거의 완벽한 카이유보트의 그림이었다.

영화 중 잠시 지나가는 장면에 등장하는 이 그림의 오마쥬를 알아 보고 매우 놀라웠지만 반갑고 재미있었다. 콜레트가 살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카이유보트가 그림을 그리며 활동한 시대와 겹친다. 그 당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 장면은 카이유보트의 그림이 실제 일상 속에 사람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물질적 어려움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카이유보트는 특정한 화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사진처럼 정확한 묘사력으로 그려낸 이 그림을 처음엔 전통적인 살롱전에 출품 했는데 노동자가 반라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 '천박' 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파격적인 전시로 평가받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전에 출품했더니 이번에는 너무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부르조아' 적이라고 역시 혹평을 받았다고 한다.

카이유보트는 34살에 그림을 접고 전원 생활을 하면서 동료 화가 후원에 힘쓰는 그림 콜렉터가 된다. 자신이 그린 그림은 모두 프랑스 정부에 기증했는데 혹평 받는 그림이라 이름 없는 미술관에 전시 할까 봐 룩셈부르크 미술관과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마루 깎는 사람들' 은 그의 조건대로 처음엔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있다가 나중에 오르세 미술관으로 옮겨 와 자리를 잡았다. 언젠가 파리 여행 때 그곳에서 본 그림을 세월이 흐른 후 영화 속에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가웠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장면을 '아, 카이유보트!' 하며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의 또 하나 비밀스런 기쁨이다.

《김동백》